

평강

READING

요한복음 20:19~26

-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THINKING

1.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닫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9절)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20절)
3.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세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25절)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첫번째는 두려움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두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번째는 불신앙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두려움과 불신앙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불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PRAYING

1.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3. 불신앙이 우리를 뒤엎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케 하옵소서.